

# 벌써 251득점... 김요한 부활 비결은 '땀'

(2014~2015시즌·51세트)

## 역대급 성적에 도전하는 LIG 김요한

9일 삼성화재전 37득점·성공률 65% 괴력  
지난 2시즌 부상에 부진...상처받은 자존심  
7월 KOVO컵 전부터 맹훈련...땀의 결과물  
용병 에드가에 필적하는 성적...한계에 도전

삼성화재는 9일 LIG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진땀을 흘린 끝에 3-2로 이겼다. 박철우가 군 입대로 빠진 이후 이기는 게 더욱 힘들어진 삼성화재였다. 2-1로 앞선 4세트, 22-20에서 끝내지 못했다. 23-25로 역전패 당하며 폴 세트까지 끌려갔다. 예전의 삼성화재, 고비를 못 넘고 스스로 허물어지던 평상시의 LIG라면 상상 못할 장면이었다.

4세트의 운명을 바꾼 주인공은 LIG 김요한이었다. 10득점을 몰아치며 76.9%의 공격성공률, 5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외국인선수 에드가를 능가하는 수치였다. 비록 파이널 세트의 고비를 넘기지 못해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벗어났지만 9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을 빛낸 스타였다. 최근 2시즌 동안 이렇저런 부상과 이유로 공격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던 김요한은 이번 시즌 모든 수치가 상승했다. 역대 최고 성적이었던 2011~2012시즌에 근접했다(표 참조). 통산 3000득점에도 145점만을 남겨뒀다. 김요한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난 2시즌 동안 부상이 겹치면서 이렇다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LIG 김요한이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공격 수치가 올라가며 예전의 위력을 되찾았다. 스포츠동아 DB

### ● 2014~2015시즌 김요한 성적(12월10일 현재)

날짜(월-일)	상대	결과	김요한 득점	공격성공률(%)	에드가 득점
10-20	한국전력	1-3 패	13	33.33%	23
10-25	우리카드	3-2 승	23	63.64%	30
10-29	현대캐피탈	1-3 패	21	59.38%	18
11-1	OK저축은행	0-3 패	10	43.75%	15
11-3	대한항공	1-3 패	33	58.49%	20
11-6	삼성화재	2-3 패	24	53.85%	41
11-15	우리카드	3-1 승	19	62.96%	29
11-18	대한항공	3-1 승	20	57.69%	27
11-22	OK저축은행	0-3 패	7	43.75%	17
11-25	삼성화재	1-3 패	20	45.95%	27
11-30	한국전력	3-0 승	10	40.91%	25
12-2	현대캐피탈	0-3 패	14	53.85%	10
12-9	삼성화재	2-3 패	37	65.45%	27

### ● 김요한 V리그 통산 성적(12월10일 현재)

시즌	출전세트	득점	공격성공률(%)	서브	블로킹
2007~2008시즌	77	194	41.31%	12	18
2008~2009시즌	129	513	49.32%	27	49
2009~2010시즌	122	530	51.69%	22	35
2010~2011시즌	52	178	55.80%	9	15
2011~2012시즌	113	671	51.61%	22	39
2012~2013시즌	71	312	48.47%	23	20
2013~2014시즌	76	263	50.77%	13	19
2014~2015시즌	51	251	54.37%	7	20

책임감도 변신을 요구했다. 강윤명 사무국장은 "이경수 하현용에 이어 팀의 3번째 선장으로 많은 책임감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입맛에 맞지 않은 토스가 오더라도 후배 세터들을 다독여가며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후배를 위한 마음씀씀이는 코트 밖에서도 이어졌다. 최근 이효동의 생일선물물고급 운동화도 선물했다. 살갑게 먼저 다가서는 선배를 후배들은 잘 따른다.

### ● 2시즌 연속 발목을 잡았던 부상의 악령에서 벗어나

2011~2012시즌 김요한은 개인통산 최고 성적을 올렸다. 113세트에 출전해 671득점을 기록했다. 그 시즌 LIG는 외국인선수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2시즌째 활약하던 밀란 페피치가 부상을 당했다. 어쩔 수 없이 김요한에게 라이트 자리를 맡겼다. 공격을 전담하는 위치에 서자 공격력은 더욱 빛났다. "토종 선수 가운데 가장 2단볼을 잘 때리고 파괴력이 있는 선수"라는 배구계의 평가를 입증시켰다. 외국인 선수 이상의 활약이었다.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두 시즌 동안 부상이 찾아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부위였다. 손등 팔꿈치 출전이 줄었다. 다행히 이번 시즌은 아직 부상이 없다. LIG가 유일하게 KOVO컵에서 우승했던 2012년 김요한은 MVP(최우수선수)였다. 7월 KOVO컵을 앞두고부터 김요한은 많은 준비를 했다. 우승을 노렸다. 그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며 흘린 땀의 결과가 최근 수치다. 시즌 전의 전지훈련 때부터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땀이 새로운 선수로 만들었다.

### ● 아직은 화룡점정을 못한 LIG와 김요한

김요한의 성적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에드가보다 많은 득점을 하며 평균 수치를 넘어서는 날 팀은 졌다. 다른 선수들이 활약을 빛내주지 못했다. 9일 삼성화재전은 그래서 상징적이었다. 37득점, 65.45%의 공격성공률을 기록하고도 졌다. 에드가가 27득점에 그쳤다. 범실은 28개로 삼성화재의 17개보다 11개나 많았다.

트리플크라운도 한 차례 눈앞에서 놓쳤다. 아직 화룡점정을 하지 못했지만 김요한의 최근 성적은 이번 시즌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벌써 지난 시즌의 공격수치에 다가섰다. 레프트로 상대의 서브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리시브 부담까지 안고 올린 수치다. 문용관 감독은 "리시브만 더 잘해주면 최고의 선수"라고 단언했다. V리그 팬들은 아직 김요한의 한계치를 보지 못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홍국생명 조송화(14번)가 10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전에서 서브 득점에 성공한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홍국생명은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성남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in

## 홍국생명, 도로공사 꺾고 4연승

김수지·이재영·김혜진 두 자릿 수 득점  
루크도 27득점...폴세트 혈투 끝에 승리



홍국생명이 폴세트 점점 끝에 한국도로공사를 제압했다.

홍국생명은 10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NH농협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6-24 23-25 25-14 13-25 15-9)로 이기며 8승4패(승점 23)를 기록 2위를 유지했다. 도로공사는 3연패의 늪에 빠졌다.

도로공사 서남원 감독은 "강한 서브로 홍국생명을 공략하겠다"면서 승리의 키워드로 서브를 꼽았다. 홍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서브를 견뎌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브에 첫 세트의 흐름이 오갔다. 도로공사는 18-18에서 문정원의 에이스와 니콜의 연타공격으로 2점차 리드. 홍국생명은 21-23에서 니콜의 범실과 김혜진의 서브가 만든 기회를 다이렉트킬로 살려 균형을 잡았다. 듀스로 이어진 첫 세트의 승패는 범실과 서브리시브가 결정했다. 24-24에서 12득점을 하며 52%가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던 니콜의 공격이 코트를 벗어났다. 이어 조송화의 서브에 고예림의 리시브가 흔들렸다. 2단으로 연결된 니콜의 공격을 루크가 블로킹으로 잡아냈다. 도로공사의 범실 7개와 홍국생명의 블로킹 3개가 승패를 갈랐다.

2세트도 도로공사가 먼저 20점에 도달했지만 홍국생명이 턱말까지 따라붙었다. 도로공사를 살린 것은 니콜이었다. 20점 이후 4점을 뺏아내며 팀에 힘을 줬다. 24-23에서 어려운 2단 연결을 백어택 연타로 처리해 세트를 마무리했다. 2세트 12득점을 한 니콜에 비해 루크는 5득점에 그쳤다.

양 팀은 3세트와 4세트에서도 공방전을 펼쳤다. 홍국생명이 3세트를 25-14로 가져가자 도로공사도 4세트에서 25-13으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결국 승부는 5세트에서 결정됐다. 홍국생명은 8-9에서 김수지의 역전 블로킹과 조송화의 서브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한 뒤 5점을 내리 뽑아내면서 15-9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홍국생명은 4연승을 달렸다.

이날 홍국생명은 루크는 27득점, 김수지와 이재영이 각각 12득점, 김혜진이 10득점 등 고른 활약을 보였다. 도로공사는 니콜은 35득점, 문정원이 20득점을 올렸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종건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r

#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매일경제 2014. 1. 29)

## 자연을 담은 착한 이야기 캠페인,

1.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2. 음식점의 위생불량
3. 식당, 술집 공기오염 노출 높아
4. 치킨무 실제공개
5. 충격적인 생맥주의 비밀
6. 가구, 알고보니 발암물질 우글

동물에 먹이는 "항생제" 인체에도 영향 미친다 (국민일보 2014.03.0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arcid=0008097884&cp=nv>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매일경제 2014.01.29.)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3209>  
 항생제 과다투여 생닭 파문 ○○○ 공식 사과 (SBS 2013. 01. 11)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1576823](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1576823)  
 "친환경닭이 특별한 이유" (2011.5.9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02&idxno=436138>  
 "가축사료에서 항생제를 몰아내야 하는 이유" (2010.8.9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69253&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369253&cloc=olink|article|default)  
 "즐거먹는 통닭은 항생제 덩어리?" (2010.7.25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72509393784080>  
 "항생제 전혀 안 쓰고 기른 닭, 조류인플루엔자도 얼씬 못해" (2009.11.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745455&code=95031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745455&code=950312)

